

통권 제 241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11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8
세상을 향한 빛



마음의 등물
염치와 인치



십선성취
어느 개그맨의
이야기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출판사

지혜와 자비

인간 중에도 지혜 있는 자가 주재권을 더 많이 가지고 우위에 서게 된다. 또 자비한 자에게 사람이 따르고 존경을 받게 된다.



살다보면 _30

존엄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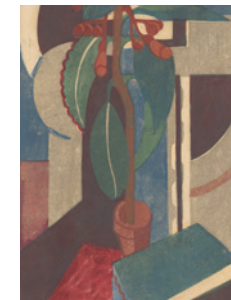
_ 이옥경



지혜의 트랙 _54

우리는 지금 무슨
업(業)을 짓고 있는가

_ 방귀희



속담으로 보는 불교 _62

꼬리가 길면 밝힌다

_ 김성철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1 서원당 안의 불교
- 14 불교이야기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4 문화재 해설
- 26 우리절 노래꽃
- 28 산책
- 30 살다보면
- 36 지장 스님의 향유
- 43 여행여담
- 46 마음의 등불
- 48 마지막 공부
- 51 동행
- 54 지혜의 트랙
- 58 십선성취
- 62 속담으로 보는 불교
- 66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0 금쪽상담소
- 72 씨앗 한 알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 김천
- 동참판과 동참불공 - 해광 정사
- 나를 버려 나를 찾는다 - 화령 정사
- 후천적 괴로움 - 임진수
- 애욕이 없으면 윤회도 없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 검여 유희강이 쓴 <행서 시고>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 묘원화 전수
- 이제 잊으라 하네 - 김대곤
- 존엄할 권리 - 이옥경
- 그대는 불타고 있다네 - 지장 스님
- 바람이 머물다 가는 평택 - lovely씨이
- 염치와 인지 - 전백찬
- 낙엽산책 - 유소림
- 인연따라 사는 법 - 탁상달
- 우리는 지금 무슨 업(業)을 짓고 있는가 - 방귀희
- 어느 개그맨의 이야기 - 남해 정사
- 꼬리가 길면 밝힌다 - 김성철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건강과 깨달음의 비유 - 법상 스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의 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교육학에 도입하여
‘로젠탈 효과’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로젠탈 효과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 격려 및 칭찬이
사람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로젠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 정도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업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로젠탈 교수의 말을 믿은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 학생들을 격려와 칭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개월이 지난 후
다른 학생들보다 IQ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9월 19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0화 - 새로운 길 5

1961년 군사쿠데타로 사회와 학교 모두 큰 혼란에 휩싸였다. 군사정부는 학교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교원 인사도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대성사는 외적인 압박 속에서도 종교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여법하게 교무를 이끌어갔다.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10월 14일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심학시간을 만들었다. 이 날만큼은 대성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수행과 마음을 통해 현실을 바로 대하는 법을 가르쳤다.

심학 시간은 회당 대종사와 대성사가 맡아 직접 밀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종립학교에 필요한 것

은 다름 아닌 종교적 원칙과 교리에 따른 마음공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학생들에게는 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값진 것인가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는데, 대성사가 전하고자 했던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다.

“불교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 완성을 추구한다. 내세를 위해 천상세계에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부분 또한 방편을 들어 가르친 것이며, 현세에 있어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닦고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불교가 염세주의적이거나 내세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비치는 면도 없지 않으나 대성사는 심학 시간을 통해 젊은 세대에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종교적 탐구와 실천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했다.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 시간이 되었다.

“현실적 문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도를 닦는 일은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얻으려는 인격적인 노력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배우고 아는 것을 넘어 반드시 실천 수행이 따라야 한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실은 결코 신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또한 원인 없이 빚어진 것도

아닌 것이다. 오직 인간 스스로 책임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인간성의 가치를 닦는 데 물려서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회적인 혼란까지 겹쳐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청소년기에 대성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들려준 심학 시간은 영혼의 샘물이자 종립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밝혀 진정한 인간교육을 선포한 표본이 된다.

이 무렵 대성사의 남산동 집에는 가족이 늘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들 순표가 자녀와 부인을 대구로 보내 대성사를 모시게 한 것이다. 심인당과 종단 일에 바쁠 때 집에서 손녀의 웃음을 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절 대성사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다.

대성사를 잘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매사에 엄밀함을 회상한다.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허튼 말을 입에 담지 않았고 정해진 일은 때와 시기를 미루지 않았다. 하얼빈 시절부터 몸에 밴 이런 정확함은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그저 지나치지 못하고 그 전말을 깨쳐 해결할 때까지 몰입하는 진지함으로 이어졌다.

진각종 시대를 열고 초창기에 수행법과 의궤를 서둘러 정하

면서 대성사의 마음 한편에 명료하지 않은 의심이 늘 남아있었다. 특히 진언수행의 중심이 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의 경전적 근거를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였는데, 당시 상황은 대장경 전체를 낱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미뤄두고 후일을 기약할 뿐이었다. 종단 안팎의 일이 분주하였고 종단 총책임자인 선교라는 막중한 직을 맡고 있었기에 교리 연구에만 힘을 기울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창종 이래 진각종은 육자진언 염송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았다. 육자진언이 관세음보살의 본심이며 이로써 심인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삼고 수행의 본체는 관세음보살을 세우고 있었다. 때로는 관세음과 아미타불의 명호를 호명염불할 때도 있었으니 종교 체계가 완비되기 전이라 혼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밀교의 기반에서 수행과 신앙 전반을 완전히 체계화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교판(敎判)에 대한 미흡함은 늘 대성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남았다. 방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밀교의 입장에서 종합하고 체계를 세우는 교상판석(敎相判釋)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대성사의 견해였다.

“가정에는 모름지기 조상의 내력이 필요하고, 국민은 곧 국

가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교상판석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성사의 입장에서 진각종은 신흥 종단으로 힘찬 걸음을 내디뎠지만, 밀교적 원리로 불교 전체를 회통하여 교리와 체계를 온전히 세우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밀교 수행을 내세웠지만 정통 밀교로 가는 길은 멀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후일 새로운 길을 열고 진각종에서 나오게 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생자필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의 시간을 맞게 된다. 운명의 시간이 닥쳤으니 1963년 10월 16일 대구 침산동 심인당, 지금의 불승 심인당에서 회당 대종사가 열반에 들었다. 대종사는 그해 회갑을 맞았으나 세상과 인연을 남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지병으로 육신의 기력이 다하게 되었다.

열반에 들기까지 세 차례 뒷일을 당부하였는데, 대성사는 종단 책임자로서 모두 참석하여 회당 대종사의 뜻을 듣고 후일을 함께 논의했다. 두 분은 서로 말이 필요 없이 눈만 마주쳐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밀교를 중흥하자는 두 성인의 기약은 조금의 틈도 없이 굳게 맺은 결의였기 때문이다. 대종사는 임종 전날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1970년대 초 진각종 스승들과 함께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법이라.”

심인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시작한 지 17년, 세속의 인연 62년을 밀교를 세우는 일에 바치고 생을 마쳤다. 장의는 진각종 종단장으로 치렀고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성사가 맡아 밀교 중흥의 씨앗이 된 회당 대종사가 가는 길을 여법하게 밝혔다. 돌아보건대 사람의 인연 또한 법계가 정한 것이며, 대성사와 회당 대종사의 만남은 이 땅의 밀교를 열었으니 그 인연의 무게는 무겁고 컸다.

회당 대종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1964년 3월 23일 종제개편과 종헌 개정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종단 최고위직으로 총인^{總印}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선교에서 인정, 그에 이어서 총인직이 생겨 진각종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으로 통리원과 의결기구로 종의회, 종단 전체의 감사를 맡은 사감원 등의 새로운 체제로 다시 태어났다.

그다음 날인 3월 24일 바뀐 직제와 절차에 따라 주요 임원이 선출됐다. 종단을 이끌 총인으로 대성사가 선출되었다. 이미 회당 대종사의 유지가 그러했고 종단 내 스승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터라 대성사의 총인 직 수락은 진각종의 미래에 대한 종단 전체의 기대와 염원의 결과였다. 진각종 초대 총인을 대성사가 맡은 것은 종단 전체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종단의 정식 명칭으로 '진각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대성사가 총인 직을 맡으면서 이룬 일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진각종 총본산이 있는 하월곡동 대지를 매입하여 불사를 시작한 일이다. 종조비와 사리탑을 비롯해서 회당 대종사의 위업을 추모하는 일도 흠어짐 없이 진행됐다. 아직도 하월곡동 총본산 한켠에 자리잡은 추모비의 문장은 대성사가 남긴 것이니 진각종에 남긴 자취는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총지종 서원당(법당)에는 있고, 다른 종단 법당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법당에는 본존(옴마니반메흠 진언, 불상)과 탱화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특이하게 총지종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참판입니다.

동참판은 불공자가 본인·가족·지인의 이름과 간지^{干支}를 함께 넣어 명패(갑자생 홍길동)를 만들고, 그 패를 서원사항(영식왕생~영가천도), 제재난(재난방지), 소구여의(소원성취), 영일체인경애(타인과 화합)에 걸어 놓고 불공을 올리는 판입니다.

이 동참판은 유일하게 총지종에만 있는데, 이는 타 종단의 법당에 있는 연꽃등 아래에 매달아놓은 서원지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에서 연꽃등은 넓은 공간에 달려있고, 불공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느낌이 강한 반면, 동참판은 한정된 공간에 배치되어 모든 불공자들의 서원사항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참불공은 이름 그대로 동참^{同參},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



동참판을 향해 불공하는 교도들의 모습

의 서원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서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참한 사람들이 일심으로 함께 서원하고 불공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원하여 불공하는 것 보다 여러 대중이 같이 불공을 해주어 속히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종단의 불공법은 불공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불공의 경우, 집공하시는 스님이 축원지에 적힌 주소, 간지, 성명, 서원사항을 읽어 내려가며 불공을 합니다. 이 때 스님 한분이 불공을 진행하며, 대중들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동참불공 할 때 주의사항은 불공자가 직접 서원당에 나와서 불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성일(일요일)불공이나 월초불

공에 나와 진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서원을 위해 불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패만 걸어놓고 서원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명패를 많이 걸기보다 다급하거나 중요한 서원 한가지만을 정하여 하는 것이 정진에 더욱 효과적이며 소원도 빠르게 됩니다.

동참불공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으로 남을 위하고 이로움을 주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반야경』에서는 남을 위해 행하는 불공이 깊은 복을 가져 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사람이 경과 계송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공하면 그 복이 심히 많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참불공은 나와 남을 위하는 불공이므로, 적극적인 동참불공 참여로 모두가 서원불공을 같이 할 때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참불공 매일하면 선업공덕 짓게되고 일체서원 성취된다.”

나를 버려 나를 찾는다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본인이 주인이 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밀교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늘 자성 불에 의지하며,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당상즉도(當相卽道)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들고 다니는 작은 휴대폰 안에 온갖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휴대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밥은 밥솥이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멍 난 바지에 다른 천을 덧대어 꿰매서 입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입기 싫어 안입는 것이지 옷이 해져 못입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물자가 풍부한 가운데 이것들이 평등하게 나뉘지 않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적어도 예전보다 먹고 입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분명 기본적인 생활이 다 편리

해졌는데, 왜 예전보다 더 살기 어려울까요? 왜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스스로의 주인의식이 결핍되어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심은 커지기만 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철 속에 끼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작은 차를 한 대 샀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엔 행복하겠죠. 에어컨도 나오고, 옷이 구겨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큰 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과 집 크기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행복은 그런 것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다른 사람은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두 다리가 튼튼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아닌 지하철로 출퇴근함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한 것일까요? 바로 주인의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 타인의 기준

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주체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결국 욕망의 충족인데, 그 욕망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타인이 나의 세계를 존중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먼저 타인의 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사실 남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여 정상에 올랐을 때, '경치 좋다. 기분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산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타인을 볼 때, 산을 보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착하고 욕심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후천적 괴로움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운명적 괴로움과 욕망적 괴로움

선천적 괴로움이 태생적, 숙명적 괴로움이라면 후천적 괴로움은 운명적, 욕망적 괴로움이다. 선천적 괴로움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타고난 업’에 의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의 내가 ‘나’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반면 후천적 괴로움은 ‘타고난 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괴로움이라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의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간혹 괴롭기 위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괴로움 역시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즐거움이나 이기심의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위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작은 한 가지 선택도 결국에는 여러 개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기 위한 수많은 사전 선택이 있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조차도 본인 스스로 해온 많은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그 운명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여러 선택이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의 개화(開花)’이다. 선천적 괴로움은 대략 7세 이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8세부터 16세까지는 선천적인 괴로움과 후천적인 괴로움이 공존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는 후천적인 괴로움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본다. 이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남녀를 구분하는 시기를 일곱 살로 본 것인데, 21세기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미운 일곱 살’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일곱 살이란 나이에서 구분 지으려고 했을까? 바로 이 나이부터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아’가 만들어져 가는 시기와 거의 겹친다.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나를 지탱해 나가는 욕망도 같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자아와 욕망은 선

천적인 요인과 함께 수많은 경험으로 완전한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를 갖는다. 이른바 청소년기이다.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의 시기로 들어서면 욕망을 이루는 방식이 더 세련된 방식으로 확립되고, 이러한 방식은 미래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 이렇듯 욕망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나간다.

후천적인 괴로움인 운명적 괴로움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개입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지만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다.

또 다른 후천적인 괴로움인 욕망적 괴로움은 욕망의 속성에 기인한 괴로움을 말한다. 욕망의 속성은 불과 같아서 불처럼 타올라 열기를 느낄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을 옆에 두지만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의 불 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한다. 결국 욕망에 의한 쾌락은 스스로 타서 재가 되는 찌꺼기를 만들고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또한 욕망을 감지하고 느끼며 이루려는 모든 과정에는 ‘감각, 감정, 생각’이 관여하는데, 욕망을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그 과



정에서 사용된 ‘감각, 감정,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여 번뇌로 남는다. 따라서 ‘감각적, 감정적, 사변적인 괴로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애욕이 없으면 윤회도 없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보살과 미래 중생이 여래의 큰 열반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윤회의 근원을 끊으며, 윤회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리를 닦는 데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어지러운 세상에 돌아와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어떠한 방안을 써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에게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갖가지 은애와 애정과 탐심과 음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음욕으로 인해 각자의 성품과 생명을 타고나는 것이니, 윤회의 근원이 애욕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욕이 애정을 일으켜 생사가 계속되는 것이니,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이 또 다시 생명을 사랑하여 드디어 음욕을 의지하니, 음욕을 사랑함이 원인이 되고 생명을 사랑함이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음욕으로 인하여 마음에 들거나 싫은 것이 생기며,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움과 질투를 내어 갖가지 업을 짓는다. 여기서 지옥과 아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면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을 없애야 한다.”

“보살이 몸을 빌어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정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로써 중생을 건지고자 방편으로 탐욕을 빌어 생사에 들어온 것이다. 만약 중생들이 욕심을 버리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며, 윤회를 끊기 위하여 부지런히 여래의 원각경지를 구한다면 깨끗한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원각경, 圓覺經』 불교총전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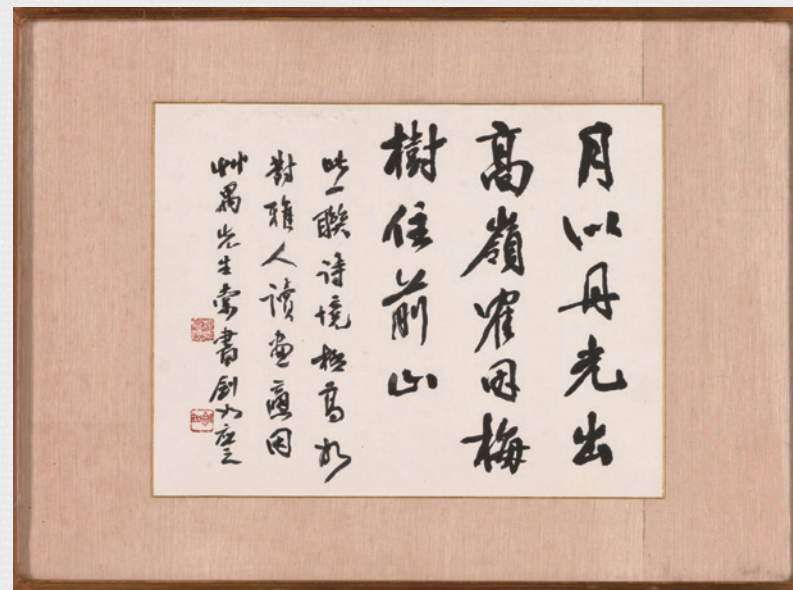
검여 유희강이 쓴 〈행서 시고〉

위드다르마 편집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한 인물이 앉아 붓을 잡고 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붓을 잡은 손을 보니 흔히들 쓰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입니다. 왼손을 움직여 이 글씨를 쓴 이는 바로 20세기 한국 서예의 큰 인물, 검여 유희강(1911~1976)이었습니다.

검여의 좌수_{左手} 시대

1937년 명륜전문학원(현재의 성균관대학교)을 졸업한 유희강은 이내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46년 귀국한 유희강은 고향 인천으로 돌아가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인천시립도서관 관장 등을 지내는 등 인천 문화예술계의 중추 역할을 도맡습니다. 글씨 연마도 게을리하지 않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여러 차례 입선과 특선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와 문인화, 전각에 모두 능했습니다. 특히 행서(약간 흘림기가 있는 글자체)에서는 북위시대 유행했던 강건한 필체를 접목해 자신만의 독특한 서풍을 만들었습니다. 또 당시 많은 서예가가 관성적으로 중국 한시를 주로 썼는데, 유희강은 이를 비판하고 한국인의 문학작품을 글씨로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968년 9월, 그의 절



유희강, 〈행서 시고〉, 1970년대, 종이에 먹, 62.5x45.8cm(작품 39.4x30.5cm), 중752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강민경〉 제공

친했던 화가 제당 배림이 급작스레 숨을 거두면서 그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반신불수로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절정을 향하던 그의 서예 인생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시금 붓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10개월 뒤, 유희강은 왼손에 붓을 잡고 이른바 '좌수_{左手}'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8년간, 유희강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일구어 나갑니다.

이 〈행서 시고〉는 글자의 획이 유연하지는 않으나 꾸밈없이 쓴 글씨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그의 좌수 글씨가 무르익었던 1970년대 중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아담한 소품이지만 유희강의 숨씨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박병훈 작곡
목정배 작사

[illegible]

BTN 불교TV에 ‘박범훈의 소릿길’이라는 찬불가 소개 프로그램이 있다. 진행자인 박범훈은 현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며, 불교음악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조계종이 설립한 불교음악원의 원장이다. 천생 국악인인 그는 지난 9월 불교음악원장 재위촉자리에서 “국악 전공인들이 불교음악원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을 통해 불교음악과 명상을 널리 알려 전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범훈 작곡의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는 전형적인 국악곡으로 세마치장단의 밝고 신나는 노래이다. 노래를 부르면 절로 어깨가 들쭉인다. 가락도 신나지만 가사도 일품이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고조선부터 석굴암을 지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숙원인 통일까지 한 민족의 기상 속에 불법이 연꽃 향기처럼 배어 있다. 가락과 가사가 이렇게 절묘하게 만나 가슴 속의 설움을 웃음으로, 분단을 통일로, 괴로움을 복되게 도와준다.

이렇게 멋진 노랫말을 써주신 분은 목정배 선생님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정배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였으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으로 후학 양성은 물론 불교전법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다. ‘머리를 깎았든 깎지 않았든 우리가 모두 불교의 중심’이라는 목정배님의 평소 철학에 고개가 절로 끄덕인다.

박범훈님이 곡을 쓰고 김성녀씨가 노래한 <거룩한 손> 역시 목
정배님이 쓴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잊으라 하네

김대곤
시인

연녹의 일어섬도
질푸르던 훔날림도
뜨거웠던 일방적 사랑
피워내고 지워지고
어지럽게 그 날들을
이제 다 놓으라하네

소리 없이 다가서는
시간 앞에 서늘히 흐르는 강물 위에 마른 잎 하나
던지면서
다 잊어보라하네

던져지듯 버려지듯
가야만 하는 시간의
그 성실한 생의 지속

가을
다 잊으라하고 떠나지만
나는 서성이네
그 속에 부는 바람 속
아직 내 그림자 짙게 머물기에……

존엄할 권리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세월 참…. 인생 참…. 올케의 봉안당^{奉安堂}으로 가는 길, 한숨 같은 탄식이 저절로 새어 나온다. 올케가 떠난 지 1년, 그새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늦도록 맹렬한 기세를 떨치는 더위 탓에 그저 여름만 같더니 어느새 들판에 완연하게 내려앉은 가을빛이 세월의 속절없음을 새삼 일깨우고, 꿈결인 듯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올케의 부재^{不在}가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참 많이도 고통스러워하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간 그곳에서 지금은 편안할는지. 그리움을 지우는 건 시간이 아닌 모양이다. 나 사느라 바빠서 잊고 지낸 날이 더 많지만 문득문득 떠올라 가슴을 적시는 이 애잔함은 언제쯤이나 열어질지.

앞집 우편함에 온갖 고지서가 넘치도록 쌓이더니 출입문에 그예 경고장 비슷한 문구를 담은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우리 올케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일이었으니 앞집 아주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우편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자식들이 한 달에 두어 번씩 빈집을 드나드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두어 달 새 발길이 끊겼다. 하나둘

늘어나는 노란 딱지가 아주머니의 부고^{訃告} 같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녀석지 못한 살림에 온갖 풍상을 다 겪느라 허리가 굽었다고 하면서도 나이 70세가 넘도록 황태 가공 공장에 다니던 부지런한 아주머니였다.

노는 날이면 잔치국수 똑딱 삶거나 부침개 넉넉하게 부쳐서 동네잔치를 벌이던 소탈한 아주머니였다. 몇 년 전 폭우에 우수관이 터져 우리 집이 온통 물바다가 됐을 때도 자다 말고 맨발로 건너와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 주던 인정 많은 아주머니였다. 그런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온몸에 주렁주렁 무얼 달고 붙인 채 사경을 헤맨다니, 산다는 게 다 무언가 허망해지곤 한다. 생과 사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 같다는 생각에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45년간 전도의 여정에 올랐던 부처님께서 팔십 노구를 이끌고 고향으로 향하던 마지막 여행길에서 심한 병을 얻어 입멸에 이르게 되셨다. 부처님께서도 애통해 하는 상좌 아난다에게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도,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은 모두 쓰러져 가는 것이니 부디 마음을 놓아 헛되게 하지 말



©Artist Catherine Kay Greenup

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하며 결코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이르셨다고 한다.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수행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의 슬픔이 컸던 것처럼 과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구나 무한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것. 죽음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리고 그 명징한 가르침을 어찌 다 따를 수 있겠나만, 오늘도 여전히 세속의 강을 건너고 있는 얇은

내 속내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뒤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봉안당, 높다랗게 안치되어 있는 올케의 유골함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노라니 만감이 교차한다. 자신이 선택한 대로 올케는 행복한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집 아주머니와 달리 우리 올케는 일찌감치 등록해 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2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임종에 이른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 소생술을 받고, 혈액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너무도 잘 알았을 것이다. 올케의 뜻에 따른 일이었지만 가족들의 결단에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일 뿐, 연명치료를 중단한 올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지듯 숨을 거두었다.

웰 다잉(well dying)으로 지칭되는 아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존엄사란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 선

택을 돕는 것이 2018년에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법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의사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임종 과정에 처한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담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술과 처치 중단을 결정해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말까지 5년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98만 4,816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나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연명 치료 중단을 두고 소극적인 안락사라는 여론도 없지는 않으나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추하지는 않게, 미련이 있을지 몰라도 짐이 되지는 않게, 그것이 존엄한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후련함을 느끼곤 한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기쁨을 깨닫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웰 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는 죽음 연습은 가능하다. 온 마음을 다해 유서를 써 보고, 수의를 입고 관속에 누워 보고, 묘비명을 지어 보는 임종 체험을 하면서 언젠가는 당면하게 될 죽음을 만나보는 것이다. 나도 몇 년 전 임종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다짐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관 뚜껑이 닫히자 텅텅 들려오던 망치소리, 그리고 역겹의 시간 어디쯤일 것처럼 몰려들던 그 완벽한 고요함이라니. 수의 한 자락 걸치고 결국 그렇게 비좁고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과의 단절, 그 깊은 어둠이 내게 준 것은 감사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부여잡고 살았다는 회한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나의 속됨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연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앞집 아주머니도, 긴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을 올케도 부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느라 상처 입은 나무가 텅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을 품어 안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인가 우리보다 더 깊은 슬픔을 끌어안고 있을지도 모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편지를 쓰듯,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안이 될 부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본다.

“깨달은 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여일^한 하며, 삶과 죽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죽음에 대한 초연한 자세도 삶의 일부분이다.”

그대는 불타고 있다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붓다가 깨달음을 완성한 곳은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에서 북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서울의 남산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가야시사’라고도 하고 ‘브라흐마요니’라고도 부릅니다. 불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이 곳에는 부처님 당시 불을 숭배하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불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삼형제였는데 그들의 성씨는 까사파 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섬기는 까사파 삼형제로 후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까사파는 한문으로 가섭이라고 음역되는데 우리가 아는 마하가섭존자와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삼형제 중에 큰 형인 우루벨라 까사파가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보드가야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사르나트 즉 지금의 녹야원으로가서 전에 함께 수행하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시사로 돌아옵니다. 까사파 삼형제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지도자이기도 했으며, 붓다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루벨라 까사파를 찾아간 붓다는 하룻밤 묵기를 청합니다. 붓다의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까사파는 머무를 방이 없다고 하면서 붓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반복해서 붓다가 요구하자 까사파는 만약 자려거든 사납고 위험한 독사가 사는 동굴 밖에 없다고 합니다. 붓다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붓다가 뱀에 물려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뱀을 굴복시켜 자신의 발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붓다가 뱀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그곳을 곧 떠날 것이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게 되자 까사파는 붓다를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붓다는 그런 까사파를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불을 피울 장작을 쪼개야 하는데 나무가 너무 크고 단단해서 수행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붓다는神通력으로 큰 나무를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때 까사파의 제자들은 붓다가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게 되지요. 얼마 후 모든 불씨가 꺼지게 되었고 새로 장작에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붓다는神通력으로 불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붓다의 언행을 지켜보던 까사파의 제자들은 점차 부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원래 자신들의

스승이 있었기에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스승 앞에서 둘러 가는 말로 붓다를 칭송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까사파는 신통력이 있을지는 모르나 자신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붓다는 까사파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그대들이라고 말합니다. 까사파는 완전한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때 붓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대는 불타고 있다네.”

그때 당시 제사를 위해 주변에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던 장작불을 가리키며 모든 존재가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이 탄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로 연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작불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실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씨와 연료, 공기가 만나 매 순간 타고 있는 과정이지요. 잘 헤아려 보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즉 몸속의 세포, 분자, 원자들은 여러 조건과 원인들이 모여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생명의 작용 또한 연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



니다. 붓다는 이런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일체가 불타고 있다. 보는 것이 불타고 있다. 보여지는 것이, 보고 있다고 아는 의식이 불타고 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보고 있다고 아는 의식의 만남이 불타고 있다. 이러한 만남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고 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들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고 설파합니다. 오늘날 뇌과학에서 정신은 신경에서 발생하는 신호, 혹은 시냅스 간에 주고받는 신호들의 무더기로 설명되지요.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이런 파격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불타고 있다는 것은 만물의 보편적 특성인 것입니다.

불이 탄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욕망, 번뇌, 고통의 불길이 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현상을 올바르게 통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반응들은 결핐과 욕구, 감정, 의도들을 만들고 다시 이것들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열 받게 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 데이기도 하지요. 심리적 화상이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현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여 이러한 뜨거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일러줍니다.

“수행자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등등에 염오(厭惡, nibbidā)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離欲, virāga),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여기서 ‘염오’는 즐기지 않음, 무관심한 것, 무대응, 벗어나고 싶은 것 등의 의미이며, ‘빛바래고’의 의미는 번뇌로 염색된 것이 반대로 탈색, 퇴색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자세하게 설명했으나 경전으로 암기되면서 핵심만 요약됐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까사파 삼행제와 그의 제자들은 결국 붓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곧 머

지않아 붓다가 말한 ‘할 일을 다 해 마친 상태’가 되지요.

우리는 늘 불타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불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과 남에게 화상을 입히는 불꽃이 아니라 따뜻함과 빛을 주는 그런 불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꽃은 조금씩 천천히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창 밖으로 시골스러운 풍경이 보인다. 평택호는 바다처럼 드넓고 호수처럼 고요했다. 서해로 트인 평택은 넓고 비옥한 평야를 품은 땅이다. 어부들은 배를 탈 때마다 만선의 꿈을 꾸었겠지만, 농부들은 평평한 땅에 바닷물이 수시로 드나드는 바람에 풍년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평택호에 방조제를 세워 바닷물을 막았다고 한다. 바닷물이 끊긴 자리에는 24km²에 달하는 인공호수를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평택호이다.

평택호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수변테크가 있어 걸으며 호수를 감상할 수 있고, 평택을 대표하는 국악, 민요, 동요 등 음악이 들리는 국내 최초의 소리의자도 있다. 호수 가운데 긴 다리를 건너면 서해를 바라볼 수 있다. 예술 공원에는 잔디와 멋진 소나무가 서 있는데다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평택호가 한눈에 들어 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석양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산책을 하다보면 야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으로 만든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검색 장소는 소풍정원이다. 소풍이라는 단어가 주는 옛날 감성을 느끼며 자동차 바퀴를 굴러 본다. ‘소풍정원’ 이름답게 사랑스러운 입구이다. 입구에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평택호만큼 넓은 소풍정원이다. 무지개 정원, 소원 터널, 빛의 정원, 지지배배 정원, 이화의 정원 등, 각기 다른 이름과 주제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어 마치 자연이 나의 마음을 꼭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소풍정원의 초입에는 화려한 색의 야생화가 활짝 피어있다. 작고 여린 꽃들을 눈에 가득 담아 두고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겨 넓은 나무다리 아래 생태연못으로 가본다. 여름에 왔었다면 다양한 수생식물과 함께 연꽃을 볼 수 있는 초록빛 가득한 생태연못이었을 것 같다. 이화의 정원에서는 매봉산에서 이사 온 조그마한 배가 열려 있는 배나무를 볼 수 있다. 무지개공원은 무지개 조형목들과 커커이 쌓아 올린 나뭇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가족단위로 놀러 온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있는 모습이 싱그럽게 느껴진다.

사랑의 터널을 지나면 빛의 정원을 만난다. 소풍정원 주변을 걷다 보면 그네가 있는 쉼터도 볼 수 있고 넓은 연못 안에는 자라, 개구리밥, 소금쟁이 친구들이 보인다. 연꽃 모형의 벤치와 무궁화 군락도 볼 수 있다.



그 다음 도착한 바람새 마을, 한눈에 들어오는 분홍빛 물결에 설렌다.

말로만 듣던 핑크물리를 처음 보았다. 파스텔 톤의 핑크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바람새 마을은 매년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핑크물리를 심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라고 한다. 핑크물리로도 유명하지만 코스모스와 억새, 해바라기, 팼파스 등이 만발해 바람새마을은 계절이 조금 더디게 지나가는 듯하다. 억새와 핑크물리의 길을 걷고 화려한 색감의 사진도 찍으며 가을의 기록을 남겨 본다. 분홍 물결 위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는 해바라기를 보며 다짐도 해본다. 다른 계절에도 방문하여 평택의 미소와 바람을 느끼고 즐겨야겠다고…….

염치와 인지

전백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呼不受蹴不食 꾸짖으며 주면 아니 받고 밟고 주면 안 먹으니
 丐子豈無廉恥 거지가 어찌 염치가 없으랴
 取必宜分必均 취할만해야 취하고 분배할 땐 고르게 나누니
 偷兒亦有仁智 도둑에게도 인과 지가 있다네

- 이언진(1740~1766), <송묵관신여고>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데, 이들도 무례하게 주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기 소유가 아닌 재물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부르는데, 이들도 마구잡이로 남의 재물을 취하지는 않고 분배할 때가 되면 반드시 공평하게 나누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와 도둑이 염치와 인지^{仁智}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간교하게 윗선에 아부하고 마구잡이로 남의 재물을 취하여, 일신의 부귀만을 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다.

이언진의 생애와 의식, 그리고 당시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재능으로 유추해 보면, 위의 시는 신분 사회의 모순을 절감하게 된

중인^{中人} 신분의 한 천재 시인이, 당시 기득권층의 파렴치하고도 몰지각한 행태를 목도한 뒤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지은 작품일 것이다. 염치를 논하자니 비유로 드는 거지에게조차 미안하고 인지를 이야기하자니 줌도둑만도 못한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직접 보고 느꼈을 때, 그의 가슴은 회의와 분노로 먹먹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기서 말한 거지나 줌도둑만도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고, 그들에 의해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고 가르쳤던 맹자가, 그리고 그 의리를 가슴에 새기고 구차한 삶 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비장하게 목숨을 바쳤던 의인^{義人}들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회의와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자괴감에 허허로운 웃음을 지을지도 모를 일이다.

낙엽산책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좌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따사로운 겨울 평화가 앞산에 가득하다. 풀이와 산책에 나선다. 산길에 낙엽들이 수북하다. 지난봄에 연둣빛 아기로 생겨난 잎사귀들이다. 얼마 전엔 색색의 장엄이었다. 이제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떤 것들은 바람에 실려 가고 어떤 것들은 그냥 바스러져 갈 것이다. 무상^{無常}이다. 무상고공^{無常故空}이다. 항상함이 없으니 잡아둘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존재계는 텅 비어있다.

그렇게 모두들 흐른다. 아기가 멈추지 않고 쑥쑥 자란다. 하얀 앞니가 솟고 걸음마를 한다. 누구나 기뻐한다. 노인도 멈추지 않고 변해간다. 이가 빠지고 걸음이 느려진다. 모두 안쓰러워한다. 똑같은 흐름을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서글퍼한다. 끝없는 흐름은 에너지와 그 에너지에서 생겨난 것들의 기본 속성이다.

아주 느리긴 하지만 바위도 변해간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쪽에서 보면 생명의 과정이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죽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난 순간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고도 한다.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무상^{無常}의 예술이다. 흐름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소리 하나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음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음악은 무상이라는 우주의 이치가 보내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음악은 쌓이지 않는다. 그냥 향그러운 그 어떤 기운만 서릴 뿐…….

그 무엇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작동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칙을 거스르며 무엇을 잡아두려고 온갖 궁리를 다한다. 끝없는 흐름의 어느 시점을 탄생이라고 규정하고 또 어느 시점을 죽음이라고 규정한다. 무한한 흐름을 자의적으로 끊어내어 애써 유한 속에 가두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나’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느라 갖가지 노고를 치르지만 그것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묘한 행태다. 무엇인 ‘나’인가. 한 살 때의 그것이 나인가, 스무 살 때의 그것이 나인가. 일 초 전의 그것도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다.

낙엽을 밟으며 걸어간다. 이 순간 낙엽을 밟는 것이, 낙엽을 밟는 경험이 존재의 전부다. 이것은 죽음도 삶도 아니고 그냥 경험이다. 전 우주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신비한 그 무엇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연^{因緣}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연^{因緣}이란 이 말은 긍정적 요소로 주로 많이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좋고 나쁨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좋은 만남도 인연이요, 나쁜 만남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인^因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며, 연^緣은 간접적인 원인으로 원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로 꽃을 기른다고 가정할 때 인^因은 씨앗이요, 연^緣은 땅이나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만 있어서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연만 있어서도 그 결실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인^因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러올 수도 내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의 싹이 나고,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자라며, 정원에다 장미꽃을 심으면 장미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緣은 다릅니다. 기름진 땅인가, 척박한 땅인가에 따라 결실의 정도가 다르고 물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아예 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들어 버리기도 하게 됩니다.

떨이가 이리저리 냄새 맡으며 앞서 가다가 뒤돌아보며 나를 기다린다. 사랑스럽다. 신비하고 신비한 존재계여,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흐름이여.

용수 보살 중론 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인과 연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악이 연을 만나면 악과惡果를 얻는 것이며 선이 연을 만나면 선과善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연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난 것이고, 또 그 만남이 좋은 결실이 되든 때론 악연이 되든 하는 것은 그 후의 인연의 결과에 의해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인연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건 결코 헛된 것이 없다고 한 것도 이 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연因緣에 인因과 연緣이 존재하듯이 운명運命에도 운運과 명命이 존재합니다. 운運은 태어날 때 받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명命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분별이 없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운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면에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은 저마다 숙명宿命이란 것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가야 할 ‘길’이고, 숙명이란 것은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운’과 앞으로 만들어 가는 ‘명’으로 숙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떠밀려가거나 끌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으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가야할 ‘길’인 운명이든 가야 할 ‘곳’인 숙명이든 인연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업을 짓고 있는가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순대평론〉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잡아함경』에 네 명의 부인을 둔 남자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옛날이야기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설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부인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곁에 두고 살았다. 둘째 부인은 남들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워 가면서 아주 어렵게 얻은 부인이었다. 그래서 쳐다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셋째 부인은 마음이 잘 맞아 늘 같이 다니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넷째 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 굶은일을 도맡아 했지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어 첫째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첫째 부인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둘째는, 첫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셋째 부인은 문 밖까지는 따라가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공손히 말했다. 그런데 평소에 쳐다

보지도 않았던 넷째 부인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남자는 넷째 부인만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

여기에서 먼 길은 저승길을 말한다. 첫째 부인은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건만 저승길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 둘째 부인은 재물을 말하는데, 역시 갖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셋째 부인은 가족을 의미하는데 이들도 울면서 배웅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넷째 부인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쌓인 업이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만 죽어서까지 우리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밝고 고운 길을 다닌 사람은 죽어서도 그 업이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습한 음지를 다닌 사람은 죽어서도 그 업으로 또 다시 어두운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웰빙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웰다잉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하고 있다. 죽으면 몸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욕심껏 모았던 재물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한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



던 가족도 장사를 치루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이다.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았다면 자손들과 주위 사람들이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을 추억하게 된다. 그것이 천상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며 나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처럼 우리는 『잡아함경』 네 명의 부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몸과 재산,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사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외모는 그야말로 포장일 뿐인데 어찌다 우리가 외모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디 이뿐인가. 성공의 목표를 재산 축적에 두고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아웅다웅한다. 또한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인지 살펴봐야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이야기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고명환은 19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하여 ‘웃는 날 좋은 날’을 시작으로 다양한 개그 방송과 다수의 드라마에 배우로 출연하며 인기가 많았던 개그맨이었지만 2005년의 사건을 계기로 사업가이자 작가,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드라마 ‘해신’을 촬영하고 서울로 오던 고명환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왼쪽 눈 주위와 이마가 크게 찢어졌고 뇌출혈까지 왔다. 그런데도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당장 1초 뒤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언제 심장이 터질지 모르니 빨리 신변 정리를 마치라는 말도 들었다.

그 순간부터 고명환은 삶을 생각했다. 정확히는 생각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뇌가 알아서 삶을 재생했다. 영화가 상영되는 방에 홀로 있는 느낌이었다. 죽음과 바짝 붙은 그의 뇌가 보여주는 건 의외의 장면이었다. 패기 어린 시절 밀어붙인 4개월간의 재수생 생활, 그것이였다. 대학 개그제에서 금



©Photo by 서강 Leo

상을 탄 순간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남자 우수상을 받은 장면조차 ‘1’도 나오지 않았다.

‘내 삶에서 100% 내 의지로 산 기간은 그 4개월이 전부구나. 34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을 산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되는구나.’

고명환은 깨달았다. 그 4개월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삶은 끌려가는 생이었다. 휘둘리는 생이었다. ‘내 의지로 이끌어가는 삶의 순간을 4개월에서 40개월, 아니 400개월 그 이상으로 만들겠다.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고명환은 거둬 되새겼다. 기적이 또 문을 두드렸다. 그의 심장은 터지지 않았다. 멈추지도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을 넘겼다. 고명환은 일반실로 옮겨졌다. 얼마 뒤 퇴원까지 했다.

퇴원 후 고명환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책이었다. 당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유익한 게 독서라고 봤다. 그때부터 지겹게 읽었다. 잡히는 대로 탐독했다. 일이 없으면 하루에 15시간씩 책만 잡았다. 많이 읽을 때는 한 달에 30권 즉, 하루에 한권씩 읽었다. 어느새 집에는 책만 5,000여 권이 쌓였다. 그사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의욕이 생겼다. 율아매는 모든 일을 뒤로한 채,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대로 책을 읽은 지 18년이 지난 현재 고명환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쉬는 날에는 책을 쓰고 강연도 나간다. 내놓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가는 곳마다 인기 강사로 대우받는다. 사고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이다.

고명환은 자신이 쓴 책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에서 삶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짐을 엮고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간다. 대부분의 인간이 낙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힘들어도 왜 힘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버티며 견뎌내는 것이다. 주어진 길을 끌려간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로 “자신이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 두려울 것이 없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

움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줄 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경쟁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사자는 자기만을 위해 사냥한다.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생존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로 “아이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긴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욕망도 없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한 단계이며, 가장 자기다운 단계다. 또한 어린아이는 무한 긍정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아름답다.”

고명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질 수 있다. 실패도 할 수 있다. 자꾸 진다. 그런데 이 말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패’는 해도 되지만 ‘배’는 없어야 한다. 패배를 한 자로 살펴보면 패敗자의 뜻은 ‘지다’다. 누구나 질 수 있다. 지는 게 당연하다. 져도 괜찮다. 그런데 배北자의 뜻은 ‘도망가다’이다.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된다. 도망가면 영원히 이를 수 없다.”

낙타의 단계와 사자의 단계, 그리고 어린아이의 단계…….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꼬리가 길면 밟힌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도, 나쁜 행동을 계속 하면 결국 들키거나 잡히고 만다는 교훈이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은 들키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한두 번은 들키지 않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언젠가 발각되어 봉변을 당한다.

나쁜 행동에는 도둑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나라의 문화나 법률, 종교에 따라서 ‘나쁜 행동’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전에서는 살생(殺生), 도둑질(偷盜), 샷된 음행(邪淫), 거짓말(妄語), 꾸밈말(綺語), 이간질(兩舌), 험한 욕(惡口), 탐욕, 분노(瞋恚), 샷된 종교관(邪見)의 열 가지를 악행이라고 가르친다. 나쁜 행동은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살생, 도둑질, 샷된 음행의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악행이고, 거짓말, 꾸밈말, 이간질, 험한 욕의 네 가지는 말로 짓는 악행이며 탐욕, 분노, 샷된 종교관의 세 가지는 마음으로 짓는 악행이다. 이런 열 가지 행동을 지을 경우 앞날에 언젠가 그에 대한 과보로서 불행이 찾아온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듯이, 이런 열 가지 행동을 오래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 『선악인과경』에 의하면 살생을 많이 하거나 생명을 해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내생에 단명하거나 병이 많고, 도둑질을 많이 하면 빈궁하고 고독한 과보를 받으며, 사음죄를 지으면 배우자가 부정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비방을 많이 받으며, 이간질을 하면 친족이 파괴되고, 험한 욕을 많이 하면 남에게 욕을 먹고, 꾸밈말을 많이 하면 남이 내 말을 믿지 않고, 탐욕심을 많이 내면 욕심이 끝이 없고, 분노심이 많으면 남이 나를 해치며, 샷된 종교에 빠지면 마음이 항상 부정하고 비뚤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열 가지 악업들은 이를 한두 번 지었다고 해서 그 과보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악업을 지으면 그 행위가 마치 씨앗과 같이 영글어서 내 마음 속에 저장된다. 유식학(唯識學) 용어로 ‘창고와 같은 마음’인 아뢰야식에 저장되는 것이다. 그 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렇게 저장되었던 악업의 씨앗이 점차 무르익어서 발아하게 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듯이 악행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난 후 고통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불교전문용어로 이숙인-이숙과의 인과응보라고 부른다. 이숙(異熟)이란 위빠까(Vipāka)의 번역어인데, 문자 그대로 ‘다르게(異, vi) 익는다(熟, pāka)’는 뜻이다. ‘다르다’는 것은 원인

이 선이나 악인데, 그 결과는 낙^낙이나 고통^고로 그 질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익는다’는 것은 선업이나 악업의 과보인 낙이나 고통이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요리에서 음식을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비유한다. 선인낙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의 인과응보다.

만일 선업이나 악업의 과보가 그 업을 짓자마자 즉각 나타난다면 악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선업만 지으며 살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 둘 저장되었던 업의 씨앗들이 같은 업의 반복으로 인해서 충분히 무르익은 후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악업으로 인한 미래의 불행을 예측하지 못하고, 간혹 악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 악행의 꼬리를 거둘 일이다.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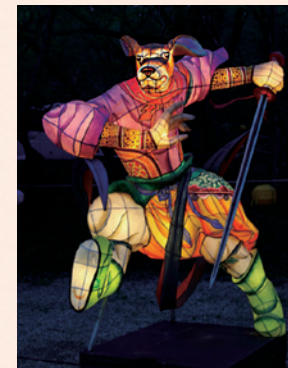
묘신장(토끼)

PART 1. 한국의 풍속

- | | |
|-------------|-------------|
| I. 사신 | V. 시집가는 날 |
| II. 화성원행반차도 | VI. 삼일유가 |
| III. 무예 24기 | VII. 조선의 풍속 |
| IV. 전래동화 | VIII. 12지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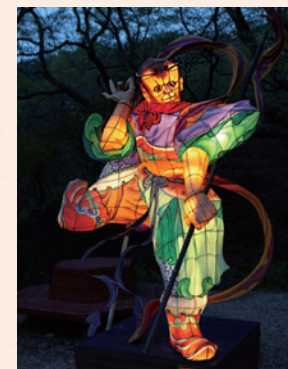
해신장(돼지)



술신장(개)



유신장(닭)



신신장(원숭이)

VIII. 12지신 (The Twelve Zodiac Gods)

십이지는 동양에서 방위와 시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를 말한다.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태어난 해와 연관 지어 성격과 운명을
해석하는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서는 이들 동물을 인간
의 수호신으로 여겨 평안한 미래를 기원하기도 했다. 서양에는
동양의 십이지와 비슷한 개념인 12별자리가 있다.



인신장(호랑이)



묘신장(토끼)



미신장(양)



오신장(말)



사신장(뱀)



진신장(용)



자신장(쥐)



축신장(소)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9. 계절과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공주 드레스 옷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외출하려고만 하면 공주 드레스와 왕관부터 찾는다.
비가 오거나 놀이터에 갈 때는 장소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원인

1) 친구가 자신의 옷과 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었는데 성인 누군
가의 반응이 좋았을 때, 그 친구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욕
구와 더불어 이런 상황이 강화된 경우

2) 남자는 더 남자다운 것, 여자는 더 여자다운 것을 하려는 특
성을 보일 경우

※ 아이들이 발달 연령에 맞춰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은 당
연히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지도방법

1)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아
이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아이의 의견대로 원하는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얘기해준다.

3) 아이의 옷에 지나치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건강과 깨달음의 비유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깨달음을 얻고 보면, 깨달음의 경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현재가 그대로 진실된 실상인 것이지, 지금 이대로가 아닌 더 성스럽다거나 더 위대한 그 어떤 다른 깨달음의 세계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 공'이라고 하여, 색이 그대로 공이지, 따로 공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설한다. 또한 '무지역무득'이라고 하여 지해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설하고 있으며, '이무소득고'라고 하여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다고 설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저 하루를 멀쩡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건강한 자신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저 살 뿐이다. 이처럼 건강할 때는 건강하다는 상이 없다.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감사하고도 놀라운 경계가 따로 있다고 여겨져 건강을 찾는다.

불교도 이와 같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건강한 상

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따로 건강한 상태,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 뿐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사람, 병이 생긴 사람에게는 건강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의사는 병이 생긴 사람에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건강'이라는 멸성제, 즉 병이 사라진 상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건강이라는 멸성제를 만들어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병을 치료한다. 즉 도성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에게는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니 고성제가 없다. 병의 원인을 구하거나, 병이 없는 건강한 이상세계를 꿈꿀 것도 없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즉 '고집멸도'라는 사성제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무고집멸도'의 의미다.

깨달음을 어떤 특정한 경계로 여기지 말라. 깨달음이라는 별다른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깨달음 이전과 다른 특별한 경계로 여긴다면, 그것은 깨달음 이전과 이후를 둘

로 나누는 분별심일 뿐이다. 그래서 불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치료약, 즉 ‘응병여약’의 방편의 가르침이 있을 뿐이다. 병이 사라지면 저절로 병 없는 건강함이 드러나 현실에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일 뿐이다. 평상심이 곧 도인 것이다.

-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지난 호 정답

①㉠ 강	공	회		㉡ 이			②㉢ 개	천	㉣ 절
감			③ 등	해	증	학	교		세
④ 찬	불	㉤ 가		타			기		미
		거		산			념		인
⑤㉥ 오	순	도	순		⑥㉦ 구	사	일	㉧ 생	
세				⑬ 개	척			택	
⑦ 대	자	㉨ 대	비		⑧ 장	구		쥐	
제		외		⑨㉩ 정	신		⑩ 스	폐	인
⑪ 도	깨	비		당		㉪ 황		리	
			⑫ 가	화	만	사	성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②㉑		㉑	
				③					
	④					⑤			
㉑		⑥	㉒		⑦㉑				
			⑧				㉒		㉒
⑨	㉑				⑩				
			⑪	㉑			⑫		
				⑬	㉑				
⑭㉑			#						
					⑮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 ② '마음이 어느 한곳으로 온통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라는 뜻
- ③ 낡거나 못쓰게 된 용품을 용도를 바꾸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④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
- ⑤ 현교에서 매월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며 영가 천도를 위해 공양 올리는 날
- ⑥ 한 학년 동안 학업상 필요에 의해 구분한 수업 기간
- ⑦ 보배로운 물건
- ⑧ 표준어와는 다르게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
- ⑨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
- ⑩ 빗속에서 치러지는 경기
- ⑪ 삶과 죽음
- ⑫ 국내, 해외여행 등에 관련된 일체 제반사항을 대행하는 업종
- ⑬ 매년 가을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 경기 대회
- ⑭ 인천에 있는 서해안가의 포구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당일 코스 관광지
- ⑮ 오늘날 대한민국 밀교의 개척자이자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의 창종주

세로 열쇠

- ㉓ 겨울이 시작되는 24절기 중 19번째 절기
- ㉒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로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
- ㉑ 밀교의 사중수법 중 재난을 소멸하는 식재법 '옴 자례 주례 준제 ... 000 사바하'
- ㉑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
- ㉑ 직선을 한자'之' 모양처럼 좌우로 그어 나간 모양
- ㉑ 1937년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 대표 견종
- ㉑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이라는 뜻
- ㉑ 석가모니부처님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나무
- ㉑ '딸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비슷하다'는 뜻
- ㉑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
- ㉑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때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과 노래를 하는 전통 민속놀이
- ㉑ 낱말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당 어휘에 관해 해설한 책
- ㉑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1972년에 역삼동에 건립된 태권도 수련장
- ㉑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함
- # 공기 중의 수분이 응결 후 미세한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 떠있는 것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밀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노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운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재길 자선화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찰나의 시간들이 모인 추억은
대부분 기쁨과 행복으로,
때로는 슬픔과 아픔으로 남아
한 사람의 삶을 만들며 이어갑니다.

흔히 추억은 지난 날의 특별하거나
행복한 순간들만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흠여졌던 한숨과
눈물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기억 속에서 웃음지으며
오늘 날을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 추억들을 결코 놓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추억이 되어 평생을 사는 동력이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의 삶 속 존재하는
얇은 추억이 서서히 깊어지기를.
열은 찰나의 시간은 짙어지기를.

발 행 일 총기 52(2023)년 11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11월호



자아의 세계는 속박의 세계
무아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